

S프로젝트 기구 만든다

(서남해안 개발 계획)

靑 “정부차원 부서 신설·특별법 제정 추진”

이병완 실장, 대통령에 보고

전남 서남해안 개발계획(S프로젝트)에 대해 청와대가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 및 정부 일각에서는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서남해안 개발을 관장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는 한편, 서남해안 개발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도입 등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기자와 만나 “청와대에서 목포와 무안, 해남, 완도 등을 연결하는 서남해안 개발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완 실장은 “그러나 서남해안 개발 계획의 최종 구상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란 서남해안 개발계획으로 불리는 S프로젝트는 J프로젝트 지역인 영암·해남 관광레저단지(3천만평)를 포함, 무안·목포 등 서남권 9천만평을 오는 2025년까지 인구 150만명의 바이오 산업·물류·레저타운으로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즉 S프로젝트는 J프로젝트 지역을 포함한 상위개념적 성격을 띤다.

청와대 전 인사수석을 지낸 정찬용 서남해안 포럼 운영위원회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남해안 개발 계획에 대해 청와대를 수차례 찾아가 논의했다”며 “이병완 비서실장과 변양균 정책실장이 서남해안 개발 계획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미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찬용 운영위원은 또한 “참여정부 임기 내에 서남해안 개발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확정짓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도 서남해안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

진될 것”이라며 “특별법 관련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며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대선 전인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서남해안 개발과 관련 참여정부에서 ‘서남해안 개발 추진단’ 내지 ‘청’이나 ‘처’ 수준의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정부가 본격적인 서남해안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를 관장한 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 기구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나 기관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광주에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확정지은 데 이어 서남해안 개발 계획을 통해 전남의 발전을 견인한다면 추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서남해안 개발 계획의 실현을 위해 이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주건설, GS건설 등 수완지구 참여 11개 건설사는 지난달 31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혁신동 일대 수완지구 현장에서 통합모델하우스 오픈식을 갖고 7천524세대에 대한 본격 분양에 나섰다.(수완지구 공동모델하우스 전경)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수완지구 7,524세대 동시분양

대주·GS건설 등 11개사 참여...어제 모델하우스 오픈

광주의 ‘마지막 주거단지’ 수완지구에 대한 통합모델하우스 오픈식이 지난달 31일 허재호 대주건설 회장, 윤정호 대방건설 사장, 장재을 모아주택 사장 등 공동 분양 참여 11개 건설사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관련기사 8면> 수완지구 공동분양 참여 11개 건설사들은 이날 광산구 운남주공 4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통합모델하우스와 서구 신세계백화점 인근 개별모델하

우스에서 일제히 오픈식을 갖고 7천 524세대 동시분양에 들어가는 등 ‘수완지구 명품 신도시’ 건설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대주건설, GS건설, 코오롱건설 등 해당 업체들은 이날 수완지구의 쾌적한 입지조건과 저렴한 분양가 등의 특징점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각종 경품행사와 음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들 업체는 5, 6일 청약신청을 받은 뒤 7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 계약은 11~13일 실시된다. 수완지구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

인 140만평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된다. 지구에 32만여평이 녹지공간으로 조성되며, 첨단·신창 등 인근 대규모 택지단지와 함께 광주 서북부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등 빼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J프로젝트 내국인 카지노 필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해남·영암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경제적 타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카지노 개설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바

다이야기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사행성 논란 극복과 내국인 카지노 운영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J프로젝트 성사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3면>

지난달 31일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카지노가 관광객 수요와 관광 매출, 수익창출의 핵심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마케팅 분야 용역을 담당하고 ‘이코노스트 아시아’는 관광객 수요 추정에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 레저활동을 포함한 전체 숙박여행객 443만 3천명 가운데 카지노 숙박여행객이 전체의 77%인 342만 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2,3단계 사업기간이 완성되는 2016년의 전체 관광수익 8천619억원 중 카지노 수익은 7천647억원으로 89%나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내·외국인이 동시에 출입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할 경우 연간 관광 투자수익률은 27%에 이르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시는 수익률이 5%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국민들께 큰 걱정 끼쳐 송구”

盧대통령 KBS회견서 ‘바다이야기’ 대국민 사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게임기 파문과 관련,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KBS 특별회견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정책실패다, 게이트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면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제가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뒤로 미루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필뉴스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대한글물가정보
TEL: 977-7300 FAX: 977-2202

本社辭令
▲吳世贊
서울지사 광고국장
(9월 1일자)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